

지역 소식통

완주군, 취약계층 우편 돌봄서비스

완주우체국에서 활동하는 집배원들이 완주군 내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완주군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가가호호 방문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갖춰진 우정형 집배조직을 활용한 '취약계층 우편 돌봄서비스(Post-Care Service)'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완주군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될 대상자를 선정해 협약 기관으로 통보하면, 완주우체국에서 집배원을 통해 대상자별 가가호호 방문해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보호자 등 가족들의 근황을 전하게 된다.

또한 응급의료 상황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비상연락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원주=이종복기자

김제시 부량면 복지기동대 독거노인 가정 방문 봉사활동

김제시 부량면(면장 임정업) 복지기동대는 4일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LED 전등 교체 및 발 일구기, 집안 대 청소 등을 실시하였다.

이날 부량면 복지기동대와 면사무소 직원들은 역할을 나누어 평소 몸이 불편하여 미뤄두었던 발 일구기를 대신해 주었고, 봄맞이 집안 대 청소를 구석구석 실시하여 깨끗한 집안 환경을 조성하였다.

부량면 복지기동대는 관내 저소득 가정의 형광등·콘센트·가스 점검 등 저렴하게 소요되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집수선을 비롯 정서지원서비스 및 이용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책박물관의 애장서전(展) 참여자 모집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책박물관(관장 박대현)에서는 완주군민이 참여하는 특별기획전인 '나의 애장서전(展)'에 전시할 소장 애장서와 사연 등을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제1회 나의 애장서전은 지역주민과 문화의 소통이 장이 되도록 하고자 책박물관에서 최초로 기획한 것으로, 책에 얹힌 소중한 사연을 엮어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전시다.

참여자격은 전북도민이며, 소장하고 있는 애장서와 사연, 관련 자료 등이고 1인 최대 2권까지다.

신청서는 책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접수는 이메일, 카톡, 방문접수 등 모두 가능하다. /원주=이종복기자

완주 관광종합센터 5월 운영

군,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관광홍보마케팅·웹투어 운영 등 추진

완주군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 등을 수행할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가 오는 5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된다.

4일 군에 따르면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는 완주군의 대표관광지인 삼례문화예술촌 인근에 건립 중인 완주관광안내센터 내에 입주하며, 시설여건이 갖춰지는 데로 5월중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관광마케팅은 시대적인 트렌드 및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성,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군은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문상담기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결정했다.

특히 군은 지난달 말 완주군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격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완주군의 관광마케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기관으로 사단법인 마을통을 선정했다.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마을통은 전문인력 4명과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관광네트워크구축 및 교육, 관광홍보마케팅, 수요대응형 시티투어, 웹투어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열 관광체육과장은 "관광마케팅 사업은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전략과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며 "전문기관 민간위탁을 통해 완주의 매력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원주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40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기자

완주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큰 호응'

군, "자녀 출산 상징적 의미"

완주군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군에 따르면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출산을 장려하고 아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있고, 뒷면에는 아기의 태모와 태어난 시,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이름, 부모의 바랍 등이 기록된다.

올초부터 시행된 아기 주민등록증은 현재까지 59명에게 발급됐다.

특히 군에서는 매일 첫 번째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기주민등록증을 전달하고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출생신고 후 신청서와 함께 아기 사진 1장을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청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와 사진을 취합, 아기 주민등록증을 일괄 제작해 등기우편으로 신청자에게 전달한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증명 효력은 없지만



완주군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모들에게 아기 탄생의 기쁨을 기념하고 자녀 출생을 축하하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작은 부분까지 배려하는 감성으로 소통하는 민원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기자

김제시보건소, 경로당 순회 중풍예방교실 '호응'

김제시보건소(보건소장 김형희)에서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순회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광활면 화신 경로당을 시작으로 40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주1회 5주간 5년5기(2017. 2. 6~11. 30)로 운영중인 중풍예방교실은 한의사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하여 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상담과 진료로 건강한 노년

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여 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검진을 통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한 후 침, 테이핑, 투약 등 개인의 증상에 맞는 상담과 치료실시하고 중풍의 원인 및 전조증상 교육, 치매예방과 신체단련을 위한 안마도인법 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뇌졸중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기(17. 2. 6~3. 17)를 수료하신 135명의 만족도 조사에서 95%(129명) 이상이 만족하였으며 참여하신 모든 분 100%(135명)가 건강관리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지역의 경로당을 순회 제2기 중풍예방교실을 운영 중에 있다.

중풍은 아무 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 전조증상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중풍에 대한 건강지식 습득 및 자가 건강관리 향상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를 기대해본다.

/김제=곽노태 기자



'다독다독, 내 꿈을 응원해 주는 도서관'

김제시립도서관, 12일부터 행사 운영

김제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주간 및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다독다독, 내 꿈을 응원해 주는 도서관'이라는 슬로건 아래 4월 12일 가두 캠페인을 시작으로 21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4월 15일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컨셉아트디자이너, '그래도 사랑해'와 '씩씩나라' 저자 임선경 작가의 '나만의 캐릭터로 세상에 이야기하기'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모티콘, 아트페어, 개인전과 그룹전의 전개 과정과 아트 상품까지 판매되는 경로를 제시해 관예정으로 디자인이나 캐릭터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월 18일에는 전래동화를 원작으로 한 '토끼의 재판', "옹고집은 누구"어린이 인형극이 열리며, 도서관 주간동안 올바른 도서관 이용 문화 확립을 위해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한마디'를 공모하여 5명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권정생 선생의 '강방이'그림책 원화 전시, 추천도서 목록 배부, 도서관 현장학습, 토요일 애니메이션 영화상영, 포토존 설치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4월 23일(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21일에는 도서대출자에게 장미꽃 책갈피, 과일호간행물을 무료로 나누어 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농기센터, e-비즈니스 교육 실시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도시민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이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e-비즈니스 교육을 올리는 4월 3일부터

보화농업인에게 실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원광대학교 정보전자상거래학부 이병화 교수님을 모시고 온라인 업체 등록하기를 시작으로

농산물 매출을 향상시키는 마케팅법과 모바일 활용지도사로서 자질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웹 활용 등 소셜(SNS)마케팅으로 승부를 걸어 보고자 총 8회에 걸쳐 20시간으로 진행된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양한 스킴을 배우며 농산물 판매 접근성이 우수한 채널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이번 교육은 6월 26일까지 진행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순창 종합 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